1973년

명동화랑의 선술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

사진은 매우 찰라적인 모습의 현장을 기계적으로 담아 낸 그림이다.

물론 사람의 시각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촬영의 결과물은 우리 인간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와 피사물의 관계는 생체적이고 존재론적 구조관계, 말하자면 살아 숨 쉬며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피사체를 지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관계를 갖는다.

물론 사진 역시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피사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습관적으로 망각한채 사진을 보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진에 투영된 피사체를 실제처럼 상상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극히 냉정하고도 기계적인, 순간의 산물인 여기 이 한 장의 사진은 1973년 명동화랑에서 내 생애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을 때의 한 장면이다. 개인전에 그림도 없고 조각도 없이 왠 사람들이 대폿집에 앉아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시회 자체가 선술집 운영이었으니 자연히 화랑에 사람들이 와서 막걸리를 먹고 자시고 하는 장면들이 뒷날 개인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 것이다.

어느날 주막에서 나무탁자와 의자에 새겨진 형언할 수 없는 기억의 흔적들, 이를테면 담배 꽁초에 비벼진 수없이 많은 생채기, 냄비에 그을리고 팔꿈치며 엉덩이에 스쳐 닳고, 끝없는 주모의 행주 걸레질에 때꼽이 기름되어 반들반들해진 표면을 보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자욱히 이글거림을 들었다. 이 탁자와 의자들을 화랑에 늘어놓고 일 주일 전시 기간 동안 대폿집을 열어 관객들에게 서브를 한 것이다. 정말 웃기는 전시였겠지만, 관객들은 와서 마시고, 즐기고, 나누고들 갔다.

이 사진이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겠냐마는 지금 이 순간,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느낌과 생각은 내가 보는 그것과 많이 다르리란 것은 확실하다. 이 장면에는 좌측으로부터 희미하게나마 장성진, 김진석(뒷모습), 신학철(뒷모습), 이건용, 김구림, 조재수(영문학), 김정헌, 박완수, 이승조, 그리고 나의 옆모습이 조금 보인다. 이 사진을 보는 지금의 내 느낌은 착잡하다. 순간순간 생멸해 가는 우리 인생을, 광속보다 천만 배나 빠른 영혼이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다면, 명동화랑의 선술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